Catholic
# 청년주보
제1032호
2018년 8월 19일(나해)

# 연중 제20주일

**입당송**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1독서** 잠언 9,1-6

**화답송** 시편 34(33),2-3.10-11.12-13.14-15(◎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

**제2독서** 에페 5,15-20

**복음환호송** 요한 6,5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림 | **홍 세레나**

## 수도 생활 체험 학교

지난 7월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 체험학교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젊은이는 수도승의 일과를 따라가며 수도자의 삶을 더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2002년 한국 최초로 체험학교를 시작한 성 베네딕도회는 청년들이 그 속에서 얻은 영적 보화를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인 성체와 성혈은 제병과 포도주가 성체성사를 통해 축성된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가톨릭의 일곱 가지 성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성사입니다.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실재하고, 실체적으로 현존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빵과 포도주의 형태에 불과하지만,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영혼과 모든 속성, 즉 신성과 인성까지도 빵과 포도주 안에 온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미사 중 성찬의 전례 부분에서 제병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말씀의 힘으로 축성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성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체와 성혈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빵과 포도주이면서 실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러한 성체에 대한 신심은 성경과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대 교회 때부터 전승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러자 군중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심하게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며 더구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군중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음식은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시는 매우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하느님께서 은혜로이 마련해주신 것이고, 따라서 감사히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빵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빵의 본질에 관한 의미도 알려주십니다. 빵이란 원래 먹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여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시어 먹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받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신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적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 주님이 머문 자리

두 달 전 중국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낯선 상황이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 준 분들을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서 한인 성당을 찾게 되었고
상해 한인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압구정 성당 오현웅 펠릭스]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낀 순간을 사진과 글에 담아 보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청년부' 친구 추가 후 전송

#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오늘의 말씀** 요한 복음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영원한 생명

### 빵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마르 6,38)

오천 명을 먹이시다.

성체 ••• 주님의 몸 •••

육화의 신비 ••• 살 / 참된 양식

성체성사

그리스도와 신자의 일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성찬 전례)

### 포도주

하느님의 약속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 6,47)

성경 속 인물

시몬 베드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6,68)

주님의 피

성혈

참된 음료

샘솟는 생명의 물

---

내 마음 밭에 다가온 말씀

##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안락함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모두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삶은 결국 하느님의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중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5, 5)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만의 세상에 담을 쌓지 않고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봅니다.

[이진영 아눈시앗다]

##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 치유와 행복의 눈물

김현숙 아녜스
도봉동성당 / 작은형제회 민족화해위원회 영한우리 청년모임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종교가 저에게는 비현실적이어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전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도 없고, 오직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파묻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했던 것, 보고 배운 것은 밭농사일뿐이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해 그 외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것은 나의 운이고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한국으로 온 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제게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미 삼아 성당에 가자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간 성당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며 갔던 성당에서 매 주일에 성가를 부를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가를 듣고 있으면 그동안 고향에서 겪었던 아픔을 누군가가 어루만져 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무거웠던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만이 아니라 고향에서는 몰랐던 소중한 추억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원망이 많던 저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지 않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감사함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오가는 위험한 길을 떠나 이곳까지 아무 일 없이 오게 된 것에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홀로 이곳으로 온 저에게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공간이 있기에 오늘도 꿋꿋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일미사를 안 가고 싶은 유혹에도, 제가 눈물로 느낀 그때 그 첫 마음과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하느님의 은혜를 앞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영한우리 청년 모임은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7기 청년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일시** 9/6~11/22 (총 12주), 매주(목) 19시 30분
**장소** 서울대교구청 5층 강의실 501호 **수강료** 8만원
**모집기간** 8/12부터 선착순 150명 마감 (전화문의 사절)
**지원방법**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주최** 서울대교구 홍보국 문화위원회

## 2018년 청년전례학교 중급 2차

**일자** 2018년 10월 6일(토), 7일(일)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대상** 2014-2018년 청년전례학교 초급과정을 수료한 청년 (본당별 4명, 선착순 120명)
**신청** 9월 18일(화) 14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
**교육비** 4만원

## 가톨릭 청년성서못자리 : 코린토 2서 성경공부 안내

하느님의 사랑과 신앙의 식별을 함께 나눌 청년을 모집합니다!
**기간** 2018년 8월 29일~12월 12일 (매주 수, 저녁 7시 반~9시 반)
**대상** 청년(만20세~45세까지) **장소** 명동성당 내 범우관 408호
**회비** 1학기 4만원(현장접수, 교재지급) **문의** 727-2379
**카페** http://cafe.naver.com/bibleseeds (청년성서못자리)
※ 청년 성서 못자리는 신부님의 강의와 신앙 나눔이 함께 있는 말씀의 모를 키우는 자리입니다.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